

# '손구용 감독' 작품 세계 집중 조명

##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시네아스트' 선정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넥스트 시네아스트'로 손구용 감독을 선정하고 동시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 조명에 나선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4회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감독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시네아스트'를 통해 손구용 감독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고 밝혔다.

'넥스트 시네아스트'는 독창적인 영화 언어로 한국 영화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감독을 선정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정된 손구용 감독은 장편 데뷔작 '오 후 풍경' (2020)을 시작으로 '밤 산책' (2023), '공원에서' (2024) 등 장·단편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품은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와 아미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풍경', '산책과 응시', '텍스트'를 핵심 요소로 삼아 서사 중심이 아닌 감각적 경험을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넥스트 시네아스트'로 손구용 감독을 선정하고 동시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 조명에 나선다.

이끄는 독특한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장·단편 영화 상영을 비롯해 사진 전시, 실내 연주 상영, 토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감독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무주상상반디숲에 마련된 전시 상영관에서는 총 5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감독이 직접 선별한 사진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또 창작자와 비평가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들과 김병규 평론가와 함께하는 토크 시네마도 진행된다.

아울러 무성영화 '밤 산책' (2023)의 실내 연주 상영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과 텍스트 기반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리그림'과 공동기획으로 운영된다.

/무주=손훈기 기자



지난 4월 11일과 12일,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6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

### 남원시,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최종 확정

남원시는 지난 4월 11일과 12일,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자 36명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세계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차 예선(11일)과 2차 예선(12일)을 거치는 동안 참가자들은 참신한 자기소개와 질의응답, 수준 높은 특기와 장기를 선보였으며, 전주MBC와 외부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본선 진출자들은 오는 4월 19일(일)부터 4월 30일(목)까지 12일간 합숙, 이 기간에는 본선 무대를 위한 훈련과 더불어 춘향의 정신과 남원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본선은 7일간 이어지는 축제의 첫날인 4월 30일(목), 남원시 관한투원 앞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열리며, 대회에서는 진·선·미·정·숙·현 및 특별상 등 총 10개 부문의 시상도 진행, 새로운 '글로벌 춘향'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은 지난 10일 육십령고개, 대적골 철생산유적, 삼봉리고분군, 침령산성, 삼고리고분군, 동촌리고분군, 장수역사전시관 등 관내 주요 국가유산 현장을 방문해 보존 상태와 활용 방향을 점검했다.

## 장수군, 주요 국가유산 유적지 현장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0일 육십령고개, 대적골 철생산유적, 삼봉리고분군, 침령산성, 삼고리고분군, 동촌리고분군, 장수역사전시관 등 관내 주요 국가유산 현장을 방문해 보존 상태와 활용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이정우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가유산별 훼손 여부와 주변 환경 정비 상태, 안내체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육십령고개의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적골 철생산유적의 보존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삼봉리고분군·삼고리고분군·동촌리고분군에서는 고분군 일대 정비 상태와 안내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침령산성에서는 산성 구간의 보존 상태와 현장 접근 여건을 확인했으며, 장수역사전시관에서는 지역 국가유산 관련 전시 운영 현황과 연계 관리 사항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국가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남원 한복체험관 '화인당', 체험 행사

남원시 한복체험관 '화인당'이 봄 관광 성수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일간 전통문화의 맛을 일리는 체험 행사 '전통누리'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화인당과 관한투원 일원에서 진행,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한복 체험 △자개 빗꽃 노래기 및 한복 인형 방한제 제작 등 공예 체험 △SNS 인증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특히 공예 체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하루 4회 예무원 마당에서 열리며,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관한투원 봄 페스타'와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한복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증정해 관광객들이 관한투원의 봄 정취를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대학가 캠퍼스 현장 홍보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젊은 감각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가 캠퍼스 현장 홍보에 나섰다.

지난 4월 7일 광주대학교와 동강대학교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원광대학교를 방문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전주대학교 및 한일장산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캠퍼스 홍보는 대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살린 '특화 자원봉사 부스' 운영을 독려하고,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현장에서는 남원시 캐릭터인 '함미·뽕이' 인형탈 퍼포먼스와 함께 팝콘, 슬러시 등을 제공하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춘향제에는 광주대, 원광대, 전주대, 한일장산대, 동강대 등 각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단이 참여해 축제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며, 남원시는 대학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감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열정을 보여 춘향제와 남원시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